

## 본태성다한증에서 흉강내시경을 이용한 흉부교감신경절제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영동세브란스병원 흉부외과

배기만 · 이두연 · 김해균 · 백효채 · 문동석 · 이성수

다한증이란 체온조절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어느 특정부위에 과도하게 땀이 비정상적으로 나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당뇨병, 갑상성 기능항진증, 두부손상 등에 의하여 이차적 원인으로 올 수 있으나 대개는 정확한 질병이 없는 건강한 상태에서 특정부위에 땀이 많이 나는 본태성다한증으로 주로 손바닥과 발바닥에 땀이 많이 나는 수족부다한증과 머리, 이마, 얼굴에 땀이 많이 나는 안면다한증으로 대별할 수 있다. 과거에는 이들 다한증 치료에 Anticholinergic drugs 투여, Topical agent 도포, 광선치료 등으로 일시적 증세 호전을 가져왔으나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은 수술적인 흉부교감신경절제술이라고 할 수 있다. 수술적 치료법으로는 교감신경에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으나 최근에 소개된 비디오 흉강경을 이용한 수술법이 환자에게 수술적 침윤이 적으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영동세브란스병원 흉부외과에서는 1992년 6월부터 1996년 8월까지 약4년 동안에 292명의 본태성다한증 환자에서 흉강내시경을 이용한 흉부교감신경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이중 손바닥과 발바닥에 땀이 많이 나는 수족부다한증이 252예, 얼굴, 이마, 머리에 땀이 많이 나는 안면다한증이 40예 이었으며 남녀 성별비는 남자가 167예, 여자가 125예로 남자가 약간 많았으며 평균연령은 25.52세 이었다. 수술시간은 양측 수술에서 평균 91.94분이 소요되었으며, 수술후 평균 4.31일후 퇴원하였다. 수술후 합병증은 흉관을 발관하면서 생긴 기흉이 6예, 일주일 이상 흉관 발관이 지연된 경우가 4예, 안검하수, 창상감염, 심방세동등이 각각 1예씩 있었으며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보상성다한증이 가슴과 등에서 있다고 호소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환자에서 손바닥과 발바닥 및 안면에 땀이 많이 나는 주증상이 소실되었으며 만족 할만한 결과를 보였다.